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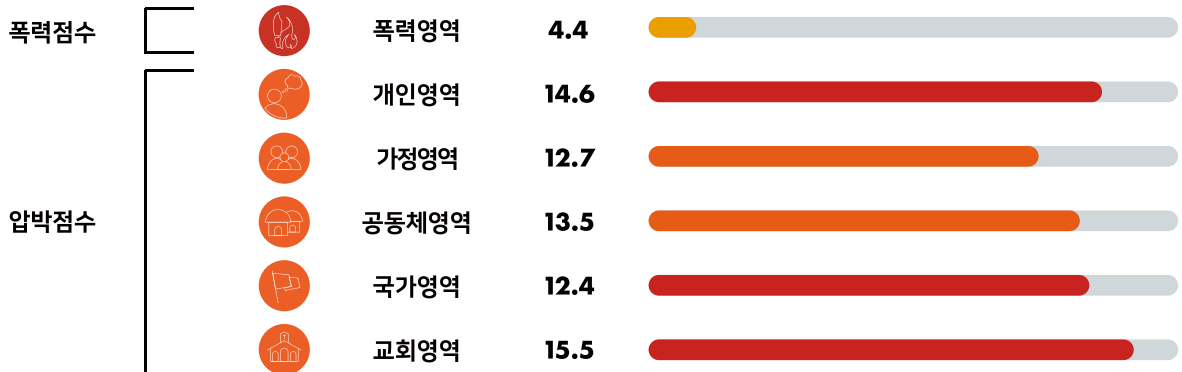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기독교 박해지수
25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모든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즈베크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비교적 적은 문제를 겪는다. 국가,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자주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토착민 기독교 개종자들이다. 교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독교인들은 경찰의 급습, 협박, 체포 및 벌금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인구 : 35,674,000명

기독교인 수 : 406,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06,000	11
무슬림	33,837,000	94.9
힌두교	1,021,000	2.9
불교	309,000	0.9

출처¹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권력이 2016년부터 집권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반대 세력과 독립 언론은 금지되어 있다. 2023년 5월 1일, 우즈벡 당국은 전날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40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 국무부의 2022 국제종교자유보고서(IRFR 2022 Uzbekistan)에 따르면, 헌법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또는 도덕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심 및 종교 자유에 관한 법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행사의 범위와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범죄로 간주하고, 종교 출판물의 내용·제작·배포·보관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며, 전도 및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종교 단체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지만, 사적 종교 교육은 금지한다. 2023년 4월 개정된 헌법은 국가를 '세속 국가'로 명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지만,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소련 시절 70년에 걸친 무신론 교육의 영향이 깊이 남아 있으며, 세속 정부는 이슬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이슬람 문화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독교 소수 공동체는 매우 약한 상태다.

포럼 18(Forum 18, 2024년 4월 26일)에 따르면, 정권 관계자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의 국가 등록 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 모든 종교 단체가 등록 시도에서 방해를 받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개신교 공동체는 경찰과 국가보안국(SSS) 비밀경찰의 압력을 받고, 정보원 모집 시도까지 당하고 있다.

2024년 5월 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기독교 교단으로는 러시아 정교회, 독립 기독교 단체, 무소속 기독교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 등이 있다.

¹ 데이터 출처: Zurlo, G. A. &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데이터 출처: Zurlo, G. A. &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 관리들의 압박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개종자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압박은 도시 외 지역, 특히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기독교인 공동체들

이 범주는 WWL 점수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러시아 정교회는 정부가 정한 제한을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방해받지 않는다. 예배는 감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유롭게 진행되며, 신자들도 체포의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출판물의 인쇄나 수입은 제한되어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가족 및 지역사회의 강한 압박을 겪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개종자 다음으로 표적이 되는 주요 집단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경우 특히 취약하다.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 교단은 경찰의 급습, 협박, 체포, 벌금 등의 피해를 입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독재적 편집증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 외에서는 어떤 종교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신교인은 자주 '극단 주의자'로 낙인찍히며, 이들이 현재 정치 체제를 감시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개신교인은 단순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이슬람 억압과 씨족 억압의 결합된 형태

토착민(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강요받으며, 때로는 신체적 폭력까지 겪는다. 일부 개종자는 가족에게 감금되거나 구타당하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몰라)들은 이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여 압박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개종자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 최선을 다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와 가부장적 규범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보다 낮게 두며, 가족 내에서 복종적 위치에 두고 있다. 여성은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개종 시 심각한 반대에 직면한다. 여성 개종자가 가족에 의해 감금되는 일은 흔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압박 방식이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며, 이는 개종자가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납치, 강제 이혼, 강제 결혼의 위험이 있으며, 성폭력(결혼 내 성폭력 포함)은 종종 인정되지 않거나 정상인 것 처럼 여겨진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심리적 / 언어적

남성

교회 지도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인권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들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구금되거나, 출국 비자를 거부당하거나,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교회 전체에 두려움의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적인 전술이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욕당하고, 구타당하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는다. 기독교 남성은 지속적인 불평등을 겪는다. 승진이 제한되고, 직장을 잃거나, 국가의 감시에 시달린다. 지역 무슬림 공동체는 기독교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의무 군 복무 중에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남성 개종자는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겪는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여행 금지/ 이동 제한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25	73
2024	25	71
2023	21	71
2022	21	71
2021	21	71

73점이라는 점수는 이전 네 차례의 WWL보고 기간보다 2점 상승한 수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한 것이 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무슬림 가족, 친구,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경찰의 급습, 협박, 체포, 벌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월:** 정권은 2021년 5월 이후 부하라(Bukhara)에 등록된 침례교 연합 교회(Baptist Union Church)의 집회를 차단해왔다. 이 교회는 2024년에 새로운 예배당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침례교인들은 “다른 장소를 임대해 모으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수해로 폐쇄된 기존 교회의 재건 허가를 거부했다.
- **2024년 4월:** 4월 25일, 누를루바이 아킴니야조프(Nurlubay Akimniyazov) 판사는 우르겐치(Urgench) 교회협의회 침례교회(Council of Churches Baptists)가 건축 중이던 두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또는 폐쇄된 교회 및 기독교 건물	구금된 기독교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기독교인
2025	1	2	10*	10*
2024	0	1	10	6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개종자가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 구성원과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가는 이러한 대화를 전도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체포와 구금의 처벌 대상이 된다.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괴롭힘, 폭력, 정부에 의한 체포를 당할 수 있다.

가족 영역

우즈베키스탄 국민 대부분은 무슬림이다. 이 때문에 가족, 친구,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슬림 사회는 개종자의 자녀에게 이슬람 교육을 받도록 압박한다. 한편 학교와 대학에서는 반종교적 선전이 강제로 주입된다. 개종자들은 대가족과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가정뿐이다. 이는 교회를 통한 청소년 사역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은 광범위한 이슬람 사회와 세속 국가 양측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는다. 개종자는 가족, 지역사회, 경찰에 의해 감시되며, 이들은 위협을 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종자를 불러 세워 수색한다. 개신교

단체는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고 대상이 되며, 경찰의 급습, 벌금, 체포,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국가 영역

법에 따라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발언과 전도 활동을 제한하고, 종교 문헌을 검열하며, 개인 주택 내 종교 자료 소지에도 제약을 둔다.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한 급습은 벌금, 교정 노동, 징역형 등 다양한 처벌로 이어졌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 없이 자행할 수 있다.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개종자나 전도 혐의를 받은 기독교인에게 가해지는 피해 또한 거의 예외 없이 처벌 없이 일어난다.

교회 영역

청소년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 활동, 주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역은 엄격히 금지된다.

형법은 전도 행위를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출처: 2017년 우즈베키스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17 Uzbekistan). 따라서 교회가 개종자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우즈베키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우즈베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다 (ICCPR 제6조)
- 비전통 교단의 교회는 급습을 당하고, 예배가 방해되며, 참석자들은 자의적으로 체포된다 (ICCPR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
- 종교 문헌의 소유 및 열람은 국제 기준을 넘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ICCPR 제18조 및 제19조)
- 기독교인과 그들의 활동은 당국과 주변 공동체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ICCPR 제17조)
- 무슬림 남성과의 납치 및 강제 결혼 위험에 기독교인 여성 개종자가 노출돼 있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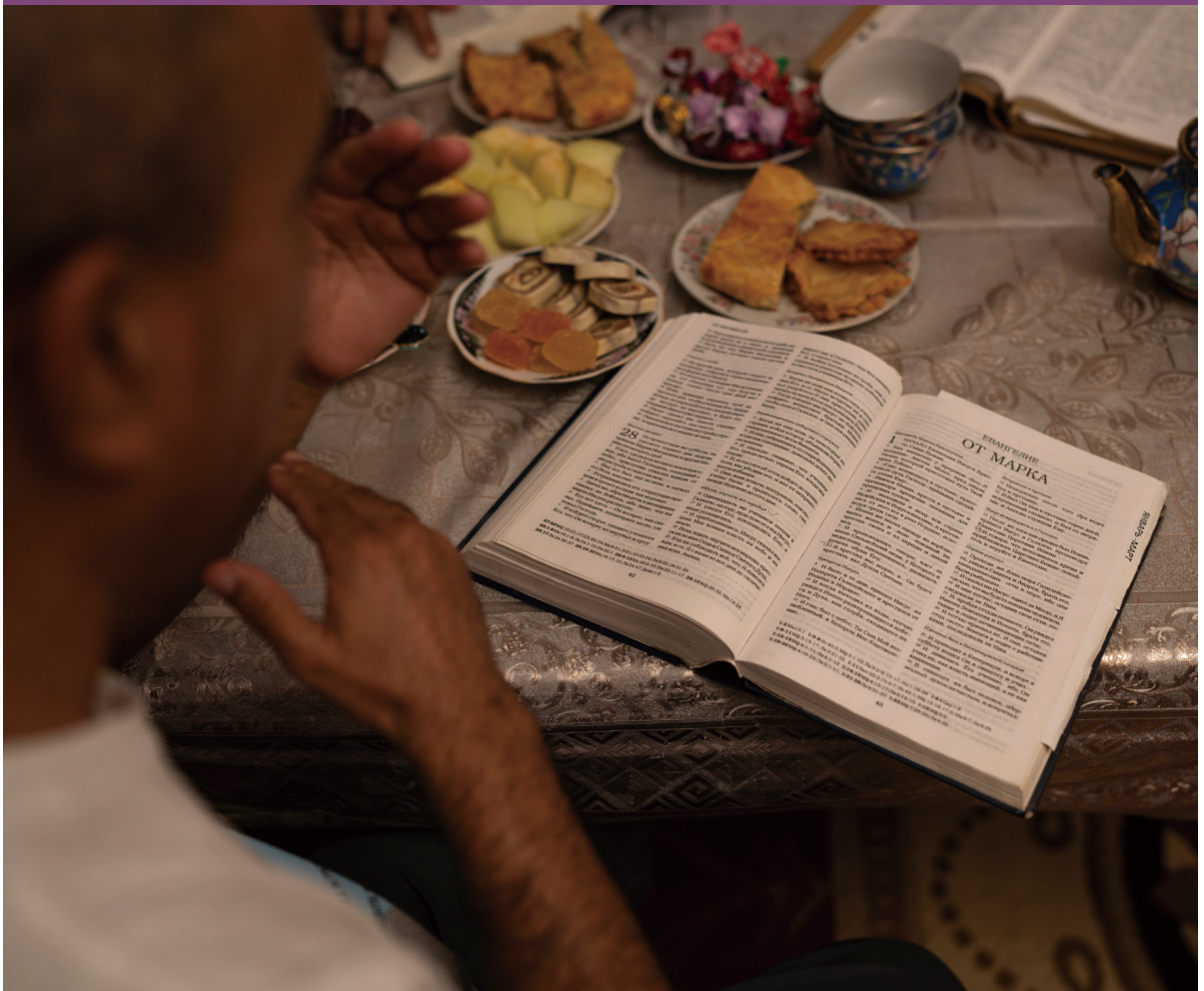
무슬림, 여호와의 증인, 유대인, 바하이교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 단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 종교문제위원회(Council for Religious Affairs, CRA)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오픈도어의 우즈베키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다.

- 기독교 자료 배포
- 기도 사역
- 성경 훈련
- 아동 및 청소년 교육
- 여성 사역
- 현장 방문 사역
- 사회 및 의료 사역
- 직업 훈련 및 소액 대출
- 아동, 남성, 여성을 위한 재활 센터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